

칼럼

황만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 한방소아과 전문가



고열과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열성 경련'

만 49개월 남자 어린이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늘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알레르기 비염 체질인 A군은 감기와 같은 질병지레를 거의 매달 겪을 뿐 아니라 편도선염이나 중이염 기관지염 등과 같이 고열이 될 때에는 열성 경련을 굉장히 자주 되풀이한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A군은 늘 밥도 잘 안 먹고 편식도 심하며, 키와 체중백분율 역시 포래에 비해서 한참이나 못 미치는 전형적인 허약아에 해당이 됐다.

2년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잦은 감기와 호흡기 합병증 때문에 독하다는 항생제 처방을 복용하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양약을 너무 오랫동안 처방 받아 왔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점점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한데, 최근 들어서는 열성 경련이 더 자주 반복되고 있어서 혹시 뇌진탕(간질)이 아닐까 하는 괜한 걱정도 많이 들었다.

얼마 전에는 너무 심하게 열성 경련이 나타나서, 혹시나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MRI 촬영과 뇌파

검사도 받았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상 문제가 없다고는 해도, 어머니의 입장에서선 언제까지 이렇게 열성 경련이 지속될지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매번 고열이 될 때마다 반복되는 열성 경련에 대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한의학적 방법으로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소아기에는 열성 경련이 흔히 잘 나타나며, 모든 어린이의 6~7% 정도가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열성 경련을 경험하고 있다.

소아 중에서도 영아(1세 미만)는 급성 발열의 시초, 대사 장애, 분만 손상 또는 사고 후유증 등으로 경련이 잘 일어난다. 특히 지능 부진,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들은 경련이 더 잘 일어난다는 임상적 보고가 있는데 지능 부진 아동의 약 20%, 그리고 뇌성마비 아동의 약 35% 정도에서 경련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생후 1개월부터 3개월 사이에서 열성 경련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호흡정지발작이나 뇌결함(선천성 뇌형성 부전이나 분만시 손상) 또는 경막하 혈종과 같은 두부 외상, 간질(특히 "West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Infantile Spasm), 두개내 감염(뇌수막염·뇌염), 테타니, 중금속 중독 등에 의해서도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임상 케이스와 같이, 호흡기 감염 등의 선행 요인으로 인해 발열(고열)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열성 경련은 대부분 아무런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뇌손상도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통 열성 경련이란 영유아에서 열성 감염증(예를 들어 감기 및 감기 합병증과 같은 호흡기 감염 증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체온 상승기에 전신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소아과 교과서상으로는 전체 소아의 3~5%에서 경험한다고 한다. 대개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체온이 갑자기 상승할 때 생긴다. 그리고 만 5세 이후에는 드물게 나타난다. 또한 남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열성 경련은 체온이 갑자기 상승할 때 생기며, 대개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데 가족 중에 이

러한 열성 경련 과거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신체 일부에만 한정된 양상이 아니라 대개 전신적으로 또한 대칭적으로 일어나며, 약 15분 이내에 사라진다. 신경학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아이에게도 잘 발생하며, 열성 경련 후에도 이렇다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복되는 열성 경련에 시달리고 있는,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속열이 많은 어린이의 경우 체질적인 속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대표적인 소아 처방인 '육미지황탕(열방)'이나 '백호탕(비방)'을 주로 처방하게 된다. 만일 비위 기능이 허약하여서 식사량도 적고 키도 작으면서 윤키도 부족하여 결국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에 시달리기 때문에 열성 경련이 잘 일어난다는 아이들에게는 '보종익기탕' 또는 '육군자탕'과 같은 처방들로 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한다.

어린이들의 불안정하고 허약한 비위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반복적인 열성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주기 위한 핵심적인 한의학적 접근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호흡기 계통 허약을 동반한 아이들이라면 '형방패독산'이나 '청상보호탕' 등과 같이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한약 처방도 함께 병행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순응도에 따라서, 속열을 풀어주고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주며 비위 기능을 건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보조적 치료 목적으로 '수태음폐경'이나 '죽양평위경' 또는 '족태음비경'을 위주로 하여 일반화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社說

주차장 폭 확대 바람직하다

1990년 이후 2.3m를 유지해온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내년 3월부터 2.5m로 확대된다니 주차공간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좁은 틈 사이로 문을 열다가 옆 차랑에 흠집을 내는 문콕 문제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단위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윤키도 부족하여 결국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에 시달리기 때문에 열성 경련이 잘 일어난다는 아이들에게는 '보종익기탕' 또는 '육군자탕'과 같은 처방들로 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한다.

개정안은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1단계 문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했다. 또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늘렸다. 보통 중형 차량의 폭이 1855~1890mm, 문 열림 폭이 560~600mm인 걸 감안하면 일반형은 적어도

2415~2490mm가 돼야 한다는 계산에서다.

확장형 역시 승합차나 소형트럭의 폭이 1740~1955mm에 이르는 데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의 길이가 5.1m를 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감안해 너비와 길이 모두 1m씩 확대됐다.

주차장 최소 너비는 당초 2.5m였지만 1990년 2.3m로 축소된 뒤 그대로 유지돼왔다. 1990년대 당시에 해도 주요 차량들의 너비는 1.7m 전후였다. 하지만 차량 제원과 중대형 차량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문 콕' 사고도 갈수록 늘고 주민간 갈등도 이어져왔다. 보험청구 기준 '문 콕' 사고는 2014년 2200건에서 2016년엔 34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주차문제로 시비를 불러왔던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菜重芥薑
重 무거울
芥 겨자
薑 생강

菜重芥薑

▷ 뜻: 나물은 겨자와 생강이 중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아동학대' 당신의 신고만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호미 하나로 자갈밭을 갈고, 밭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동화 '공쥐팔귀'에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겪는 서러움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비록 동화 속 공쥐는 시련을 곳곳이 극복해 나가지만, 최근 발생한 '삼남매 화재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일련의 아동학대 기사를 보면서 현실은 동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것

을 새삼 깨닫는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아동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징조는 발견할 수 있다.

아동에게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왜소한 체구,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징후를 발견한다면 112나 아동학대 신고열선 '이지킴112'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공쥐팔귀'의 결말은 동물과 원님의 도움으로 팔귀와 계모를 징벌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물론 잔혹한 현실에서 동화 속 영웅들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실동화가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

"아이들을 구할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고만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백기순 /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경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First Welfare Foundation' with the headline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t features images of a young woman and an elderly woman, and text promoting empathy and social harmony.